

해외민주인사 초청 다과회 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단한 기쁨과 보람으로 가득찬 마음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날 여러분이 보편적 인권과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기울여 주신 관심과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선한 목적으로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그것이 당장의 결과로 나타나는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여러분의 노력이 비교적 좋은 결실로 나타난 경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사회 여러 분야에서 불평등이 있고, 또 조직 속에서의 지배·복종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인권이 침해될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인권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제 한국에서 정치권력에 의한 적나라하고 무자비한 인권탄압은 없는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대개 지금 한국에서는 정부조직 안에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음부즈만 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또 일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많은 인권활동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1970~80년대 정말 암흑기와 같은 시기에 자기 생사를 걸고 그렇게 위험스러운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이제 인권운동의 일선에서는 한 발 물러서서 과거의 역사를 정리하고 기록하는 수준으로 약간의 여유가 생긴 셈입니다. 여러분과 또 국내의 많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 박해와 위협을 무릅쓰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신 결과입니다.

요즘은 옛날에 독재정권을 돕거나 또는 독재정권의 편에 서서 인권탄압이나 독재를 방관했던 많은 단체들도 거의 아무 제약 없이, 그야말로 민주적 권리와 인권을 한껏 누리고 있는 수준입니다.

정권을 맡은 사람의 처지에서는 그 사람들을 좀 제한했으면 하는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만, 국민들에게 물어봤더니 '듣기 싫더라도, 껴뚫더라도 그런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자유와 인권을 위한 운동이라는 것이 부당한 억압을 배제하는 데까지만 유효한 것이고, 그동안에 억울하게 당했던 것을 보상받는 데까지는 그렇게 유효한 사상이나 운동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제하고 수용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로서는 보복은 하지 않더라도 과거의 역사적 진실만을 제대로 좀 밝혀 놓고, 그것이 훗날 이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자료가 되고, 또 역사를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생각해서 지금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사라고 얘기하니까 '과거사를 다 들추어서 결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죄인으로 만들자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

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과거 권력에 의해서 저질러진 인권과 자유에 대한 침해에 관한 것입니다. 또 권력 때문에 진상조차 밝혀지지 못했고, 또 억압당했던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고 보상받을 기회가 지금까지 억압되어 있었기 때문에 권력에 의한 부당한 침해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 국민들의 모든 과거의 잘못을 다 얘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아직도 국가는 국가의 가치를 내세워서 법을 만들고 법에 의해서 사람들의 행동과 자유를 규제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를 위해서 사람들이 목숨을 바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막강한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은 아직도 도덕적 사고의 최정점의, 가장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어서 국민들의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앞으로도 국가가 이 기능을 계속하는 한 국민들에게 어떤 도덕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가의 도덕적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야만 국가가 국민들에게 규율을 강조하고 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은 진상을 밝히는 일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 대한 신원,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 외에 국가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서로 신뢰하고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직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갈등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시점에 여러분께서 내일 '과거사 청산과 민주주의'라는 토론회에 참여하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아마 이와 같은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일깨워 주는 또 한 번의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아직도 한국에 올바른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 기여하러 오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이 아주 수고하실 때가 엇그제 같은데 따지고 보면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러분이 한참 어렵게 운동하실 때는 저는 참여하지 않았습
니다. 1980년대 와서 이제 운동이 대중적으로 폭발하던 시기에 뒤늦게 참여했는
데, 지금 제가 대통령이 될 만큼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은 평생을 인권과 민주주의에 바쳐 오신 분들인데, 제가 인
사말을 너무 길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뵈니까 감격해서 얘기를 너무 많이 해 버린 것 같습니다. 여
러분이 바쁘시지 않으면 제가 시간을 더 늘리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충분히 듣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